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39호 [루게 제 24552호] 주제 103 (2014)년 5월 19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대성산 종합병원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대성산종합병원을 돌아보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와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특근중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대성산종합병원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인민군군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높이 받들고 대성산종합병원의 일군들과 군의, 간호원들은 군인들에 대한 치료사업에 자기들의 온갖 지성을 다 바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렌트겐과, 초음파과, 병리해부과, 피부과, 집중치료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치료사업과 병원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당에서 마련해준 설비들의 상태는 어떤가, 의약품은 제대로 보장되는가, 입원환자는 몇명이나 되는가를 하나하나 물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성산종합병원은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일떠선 인민군군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치료기지라고 하시면서 병원을 꾸려놓은데 만족할것이 아니라 치료사업과 관리운영을 잘하여 장군님의 사랑이 군인들에게 그대로 가닿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군인들속에서 반응이 대단히 좋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성산종합병원은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병원인것만큼 당의 보건정책관철에서도 앞장에 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병원의 물질기술적토대와 환자치료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서 모두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병원의 의료일군들이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의료설비와 기제들을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애호관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병원에서 꾸린 공원을 돌아보시면서 나무도 많이 심고 산보길도 만들어놓으니 병원으로서의 체모가 더 잘 갖추어졌다고 만족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입원실도 돌아보시면서 전투훈련중에 부상을 당한 군인들을 만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고 상처자리도 보여주시며 치료는 어떻게 하고있는가, 몸상태는 어떤가를 물어주시였다.

치료도 전투로 생각하며 아픔을 이겨낸 군인들의 정신력에 의해 치료

성과가 좋으며 그들이 입원생활을 낙천적으로 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군인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면 죽을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불굴의 강인성과 낙천성은 인민군대의 고유한 기질이라고 하시면서 적들이 이것을 무서워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어 병원에서 보양을 받고있는 육아원과 애육원 원아들을 만나시였다.

지난 2월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들의 실태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평안남도의 육아원과 애육원에 몸이 허약한 아이들이 있다는것을 아시고 그들을 대성산종합병원에 입원시켜 보양시키는데 대한 과업을 인민군대에 주시였다.

대성산종합병원의 일군들과 군의, 간호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원아들을 위해 지극한 정성을 다 바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애육원 원아들의 입원실들에 들어서시자 아이들이 저저마다 《원수님, 안녕하십니까?》, 《원수님, 안녕주세요.》하며 원수님의 품을 파고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머리끝을 부리는 아이들을 사랑의 한품에 꼭 안아주시며 혈색이 좋고 영양상태도 좋다고, 하나같이 보통보통한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웃내 기뻐하시였다.

몇살이나, 밥은 잘 먹느냐, 무엇을 하며 놀고있었느냐 다정히 물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물음에 꿈결에도 그리운 친아버지정을 느낀 아이들은 TV에서 아버지원수님을 뵈웠다고 씩씩하게 말씀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앞에서 원아들은 활기에 넘쳐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불렀으며 《아버지원수님 고맙

습니다.》고 인사를 드리였다. 헤어지기 아쉬워 또다시 동동 매어달리는 원아들을 달래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젖어 올랐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육아원 원아들의 입원실들에도 들리시였다.

아직은 말을 제대로 번지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와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명 한명 다정히 품에 안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육원들과 간호원들의 품에 안겨있는 애기들의 볼을 쓸어주시며 병원에 입원하기 전 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한시름 놓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무게관찰표를 주의깊게 보시며 아이들의 몸상태가 나이에 맞게 정상상태에 이르렀다고, 3개월사이엔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그럴수록 마음을 놓지 말고 더 잘 돌봐주라고 당부하시였다.

원아들이 퇴원한 후에도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하자면 육아원과 애육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이 그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품속에서는 허약한 아이들이 단 한명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오늘 대성산종합병원에 찾아와 몸이 튼튼해진 원아들을 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면서 친부모의 심정으로 온갖 지성을 다하여 아이들을 보양한 병원의 일군들과 군의, 간호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성산종합병원을 기쁜 마음으로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병원의 일군들과 군의, 간호원들이 환자치료와 병원관리운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강철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한 충실성의 전통 굳건히 이어간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 서

주체철의 불노을은 오늘도 붉게 한다

5월 17일 공장 예 서

성진제강련합기업소 5월 17일 공장 회전례에 반부하를 걸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주체철생산은 훨씬 늘어가고있는 5월 17일 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주체철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수천칼레의 불노을을 날리며 쏟아져내리는 주체철물품들. 지금 이 시각도 조국의 푸른 하늘을 주체철의 불노을로 아름답게 물들이고있는 5월 17일 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불수록 미덥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드문 드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기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율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지난 1월, 새해의 첫걸음을 떼는 공장로동계급의 가슴은 크나큰 격정으로 끓어올랐다.

올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5월 17일 공장에 대한 첫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기신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던것이다.

올해에 거어 주체철생산에

서 통장훈을 부르자!

말겨진 주체철생산계획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완수하자!

이런 드높은 각오를 안고 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심장의 더운 피를 새치게 뚫었다.

련합기업소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일별, 교대별전투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생산전투를 배설있게 벌려나갔다.

일군들이 현장에 깊이 들어가 로동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증산의 방도를 찾았고 로동자들과 어깨고 힘든 일도 함께 해체졌다. 매일 방도도록 작업현장을 뜨지 않는 일군들의 모습에서 큰 힘을 얻은 공장로동계급이 교대마다에서 주체철을 1이어도 더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다.

1. 4분기 주체철생산계획을 무조건 완수하려는 공장로동계급의 투쟁열의는 3월에 들어와 더욱 고조되었다.

어느날 정인양을 종전보다 대담하게 5t 더 높은 1호회전로의 로동계급이 용해공정마다에서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나갔다. 그 누구보다 긴장한것은 사령원이었다. 장일향이 늘어났다 맞게 온도조절, 비합조절 등 로조작에 대한 기술적요구는 높

았던것이다. 주체철증산의 돌파구를 열어가기 위한 이들의 투쟁은 이날 전례없는 출강의 환희로 이어졌다. 종전의 교대당 하루기준생산량을 훨씬 돌파했던것이다.

장일향을 높여 하루 주체철을 25t 더 증산!

주체철선주자로 온 나라에 내세워준 우리 당의 믿음에 보답하려는 불같은 의리, 드높은 자각이 안아온 위훈이었다.

가격창조의 불길은 더 높기 시작했다.

늘이 세운 일일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현장을 뜨지 않았다. 이는 불같은 마음들이 사회주의경쟁도표판의 붉은 줄이 되어 쪽 쪽 솟구쳐올랐다.

로동계급의 드높은 생산열의를 기술적으로 더욱 담보해주기 위하여 련합기업소기술자들과 주체철직장 기술자들이 출선구수명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벌

리었다.

얼마후 이들이 연구한 출선구 개조안은 생산에 도입되며 큰 은을 내었다. 출선구의 수명이 훨씬 늘어났으며 로동자들은 여러 출선구를 리용하여 생산을 보다 안정하게 밀고나갔다.

이 기술적담보에 교대당 하루 2차치로부터 3차치, 4차치로 주체철생산은 늘어났던 어느날 기세충천 만부하로 돌아가던 2호산소용용로가 뜻밖에도 주체철생산에 막까지 가다러던 적어도 이들은 걸려야 했다.

당앞에 결의한 주체철생산계획을 수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때 수리작업반장 김재철등무가 채식지 않은 로숙으로 서슴없이 들어가 용접의 불꽃을 날렸다. 뜨거운 열기로 신발바닥이 타들어가는 속에서도 용접불꽃을 날리는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시켰다. 1시간만에 주체철생산의 동음은 다시 울려퍼졌고 용접장은 약동했다. 어찌 포성이 울부짖는 전희의 나날에 만 영웅이 있고 무비의 희생정신이 발휘된다고 하였는가.

3월말 회전례의 벽들이 탈라쉴 때에도 공장일군들의 최후전, 락몬석등무의 뒤를 따라 로동자들이 부끄러움 없이 용접을 지어 로숙으로 벽들을 날라 축조를 빠른 시간안에 끝내고 몇시간만에 주체철을 쏟아내었다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우리 무심히 들을 수 없다.

난관을 바로하고 위훈의 한길로

만 내달려온 이 곳 로동계급이 1. 4분기 주체철생산계획을 기어이 완수한 소식은 온 천의 기지를 뽐내었다.

일련만이 들끓은것이 아니었다. 주체철생산자들이 사는 가정과 마을이 명절처럼 흥성이었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의 조직사업에 의해 여태래의 방송선전자가 주민지구를 돌며 축하방송을 하였다. 일군들이 주체철계획수행에서 남다른 위훈을 떨친 현상자들을 집앞까지 태워주었다. 그리고는 남편의 퀴바라지를 성실히 해온 안해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었다. 온 마을사람들이 떨쳐나 혁신자가정을 중심으로 축하해주었다. 형식과 틀이 따로 없는 선동이었다.

주체철증산열풍은 성장명당에 더욱 세차게 타들어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30년이 되는 뜻깊은 5월의 하늘가를 더욱 붉게 물들이고있다.

이글거리는 불덩이만강 북방의 철의 기차 열을 불게불게 물들이는 주체철의 불노을은 5월 17일 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보탬의 마음, 신념의 분출이다.

본사기자 리철욱

『진군길에 새겨가는 비약의 모험』

새로 개건된 4호회전로

최근 련합기업소에서는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설비조립련합기업소, 용성기계련합기업소, 라담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과 협동하여 5월 17일 공장 4호회전로를 새로 개건하였다. 개건된 회전로운영에서 제일 주목되는 점은 로보수주기가 대폭 줄어들어 된다것이다. 기술자들에 의하면 무정형내화재로 안분입한 회전로의 보수주기를 새로 개건하였다. 개건된 회전로운영에서 제일 주목되는 점은 로보수주기가 대폭 줄어들어 된다것이다. 기술자들에 의하면 무정형내화재로 안분입한 회전로의 보수주기를 새로 개건하였다.

주요합금원소의 국산화 실현

구하는 여러가지 합금강을 위한 생산보장하기 위해 과학자, 기술자들이 기술인 고심 어린 탐구와 헌신은 그 열마인진 모르다.

련합기업소일군들의 치밀한 작전과 지휘에 의해 10여개의 생산단위에서도 기술도입에 맡겼고나갔다.

현재 여러종의 합금강이 국산화되었으리던 일정한 부분은 공업화단계에 들어갔다.

도 문화적으로 개건하여 일터가 면되었다.

여러차례에 걸쳐 암시합을 하면서 불꽃개조를 퇴치한 1산소직장의 로동계급이 지금 암시합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오래지 않아 6000㎡ 산소분리기와 합금강을 위한 기초공사를 석달이나 앞당겨 끝냈다.

건설의 벽채와 바닥, 지붕

머지않아 울릴 6000㎡ 산소분리기의 동음

산소분리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6000㎡ 산소분리기 보수를 마감단계에서 내밀고있다. 이들은 종전의 압축기를 들어내고 셋으로 교체하였으며 판로망들도 새로 놓아준다. 산소분리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강철증산에 이미 지랄 불타는 마음을 안고 산소분리기보수현장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압축기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석달이나 앞당겨 끝냈다.

건설의 벽채와 바닥, 지붕

전극과 내화물의 질을 개선

다되고있다.

내화물직장에서 초미분쇄공정을 새로 꾸려놓고 프레스를 능력이 큰것으로 교체하여 내화물의 강도를 1.5배로 높였다. 신심에 넘쳐

본사기자

키는 보통 1년으로 보고있다. 회전로의 가동일이 지난 시기에 비할바없이 늘어났으므로 하여 주체철생산은 훨씬 높아질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머칠전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며 4호회전로에 첫 화입을 하였다.

성강덩이 자랑하는 영예의 혁신자들

각종 내화물혁신을 다그치고있는 이곳 로동계급은 회전로와 전기로의 벽들수명을 종전보다 2배이상으로 높이고있는 혁신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여기는 1조강직장 압연작업 현장이다.

시뮬백 질달아오른 강면들이 연연장 압연기를 빠져 쪽쪽 뻗어나가는 호젓한 광경이 펼쳐졌다.

썩, 썩- 위엄없이 소리를 내며 내뿜는 맥각수, 강피를 물고 드넓은 작업장을 분주히 오가는 현전기 철기의 동음이 그 철새같이 울려나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일수록 필스의 신념과 비상한 각오를 더 굳게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새차게 일으켜나기야 합니다.》

철강증산투쟁으로 불노가

현시보도

니만큼 뛰어넘는 작업현장은 참으로 불만하다.

장쾌한 불의 세계이다.

우선공의 능숙한 조작에 의해 육중한 강피가 기우뚱거리며 가열로를 통과하자 분파압연기가 가다러나가는듯이 딱딱이주무르듯 한다.

우리까지 이아기를 나누는 사이에도 절단된 강피들은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로라를 타고 솟구쳐올라간다.

련속 뻗어가는 불줄기에는 내 조국의 부강변영을 강철로 담보해가려는 성강로동계급의 애국의 숨결이 비껴있다.

현전기가 달아오른 강피를 일정한 규격으로 잘라낸다.

우리와 만년 1 작업반장은 말한다.

《장쾌한 불의 흐름을 끊임없이 이어가도록 우리 작업현장의 일음은 더욱 커가고있습니다.》

더 많은 철강생산으로 조국

신념의 불줄기

1 조강직장에서

여러차례 압연물을 거친 강피가 장관같이 길게 늘어나더니 로라를 타고 절단공정으로 미끄러져들 내려간다.

절단기가 달아오른 강피를 일정한 규격으로 잘라낸다.

우리와 만년 1 작업반장은 말한다.

《장쾌한 불의 흐름을 끊임없이 이어가도록 우리 작업현장의 일음은 더욱 커가고있습니다.》

더 많은 철강생산으로 조국

성강덩이 자랑하는 영예의 혁신자들

본소직장 제작업반장 원정호동무는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숨어있을 수 있는 설비의 고수라고 한다.

최근에만도 그는 높은 기술과 인신적으로 작업반들을 맡고있어 설비보수현장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쳤다.

강관직장 수리작업반장 박창수동무는 30년간을 수리공으로 일해오면서 설비들의 만가동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다. 그는 오늘도 《직장의 보배》로 불려오며 집단의 사랑을 받고있다.

얼마전 련합기업소에서는 강철직장, 전극직장, 주물직장의 현전기수리공들과 여거의 전기공, 압연기, 전조성로 등 많은 설비들에 대한 대보수, 중보수를 통해 크게 진행하였다. 일터의 곳곳에서 힘있게 울려나오는 설비들의 우렁찬 동음속에는 공무직장, 보수직장 로동계급의 위훈이 크게 깃들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지나 동요하지 않고 참된 애국의 한길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업무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입니다.》

현행생산에 밀고나가면서 많은 설비들에 대한 대보수, 중보수

공무직장, 보수직장 로동계급의 투쟁

나 이들은 하루를 단 몇시간으로 주름잡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분과 초를 쪼개는 긴장한 전투가 벌어진 불과 8시간만에 이들은 중수만도 30종에 달하고 가지수가 100여가지나 되는 많은 량의 부속품공장을 끝낸것이다. 이 소식은 성장명당에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흘 못했다. 그러나 립영상, 최명수동무를 비롯한 직장일군들도 로동자들과 똑같이 직접 선반을 돌리며 여러종의 부속품을 가공해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부속품가공에서 혁신이 창조

설비들의 동음이 전하는 위훈

수의 동시에 진행된다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련합기업소일군들은 로동계급의 정신력을 발동하면 못해낼 일이 없었다. 확신을 안고 여러 공정들에 대한 설비보수공을 통해 크게 전제하였다.

설비보수현장에 참가한 로동계급의 열의는 비상히 높았다.

전극직장 기종대보수전투가 시작된 어느날이었다.

부속품가공과 제작 등 작업량은 실로 간단치 않았다. 한주일은 설비걸려야 할 작업량을 공무직장의 로동계급은 하루동안에 해내것을 결의해나갔다. 그러

다를 그 어떤 조건에서도 맡겨진 계획을 120% 넘쳐 수행하고있는 혁신자이다.

전극직장 성형공 최정호동무는 자기 설비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고 애호관리하는데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다. 그리하여 그가 다루는 프레스는 언제나 만가동의 동음을 울려주었다.

주체철직장 용해 2 작업반

본사기자



원정호동무 박창수동무 리성남동무 김순철동무 최정호동무 안길수동무

조국의 품에서 은정어린 생일상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은정어린 생일상이 15일 청진시 청암구역 정산동 7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백살장수자 윤석천로인에게 전달되었다.

생일상을 받아안은 장수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일제의 군사적강점지키 경성남도 밀양에서 망국노의 설움을 안은 막벽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전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여하신 총련에서 오레동안 지부일군으로 사역하면서 재일동포들을 총련조직에 묶어세우는 한편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는 자본주의의일방향을 떠나라 외세를 치는 고향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생활에서 편식을 모르는 그는 매일 신문도 보고 화본도 가꾸고있다.

그는 자신들에게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늘 당부하고 있다.

사랑의 생일상을 받아안은 할아버지와 가족, 친척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사회주의만방이 꽃피어나는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공화국공민의 본분을 다해갈 열의에 넘쳐 있었다.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가 진행된다

올해 8월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가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

평양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는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인 이노기 간지 일본체육평화협회 이사장과 장흥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위원장 겸 국제태권도연맹 총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게 되며 일본체육평화협회와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조일우호친선회가 후원하게 된다.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진행되는 평양 국제프로레스링경기대회에는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이름난 프로레스링경기자들이 참가하게 된다.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모 참관

예멘 대통령에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아브드 람부 만수르 알 하디 예멘공화국 대통령에게 박춘일이 나라 주체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7일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아브드 람부 만수르 알 하디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

었다.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조선은 군사, 경제적으로 발전된 강대한 국가라고 하면서 조선이 통일되면 강국이 될것이다, 조선의 통일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한다, 나라의 통일위업과 경제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2014-2019년도 문화교류계획서 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2014-2019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14일 다카에서 조인되었다.

조선에서는 우리측에서 리성준 외무부장관과 방글라데슈에서는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직원들이, 상대측에서 아사드주관 루프화상과 판베루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방글라데슈문화상이 두 나라 정부사이의 문화교류계획서에 수표하였다.

제17차 평양봉철국제상품전람회 참가하였던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이 떠나갔다

제17차 평양봉철국제상품전람회 참가하였던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이 17일 비행기에 탑승하여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이 17일 평양을 떠나갔다.

제일동포조국방문단들이 떠나갔다

김룡원, 백동화 등 각종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로 박창수동지가 임명되었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로 박창수동지가 임명되었다.

